中, 달라이라마 입적 후 매뉴얼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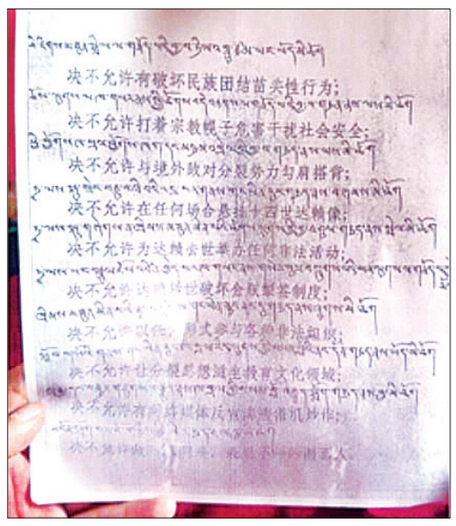
간쑤성 사원 스님에게 교육 나서
민족 단결 해 끼치는 행위 금지
사진 게시 · 추모 기도법회 막기도
"종교 자유 침해 국제 제재 필요"

박영빈 객원기자

최근 중국 당국이 중국 서북부 간쑤성(甘肅省)에 위치한 티베트 불교 사원들에 배포한 종교교육 훈련 매뉴얼에 달라이라마의 입적 후 사원들과 스님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규정을 명시하고 교육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소식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티베트하우스재팬'을 통한 티베트 내부 소식통과 망명 중인 전 티베트인 다큐멘터리 감독인 골록 직메의 폭로로 밝혀졌다.

현재 티베트 자치구와 인접한 중국 간쑤성, 쓰촨성, 칭하이성, 윈난성 등에는 티베트족이 다수 거주하는 10개의 티베트족 자치주가 있다. 이중 매뉴얼이 배포된 것으로 전한 간쑤성 간난(甘南) 티베트족 자치주에는 약 41만5000명의 티베트인이 살고 있으며 약 200개소의 크고 작은 티베트 불교 사원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안전상의 이유로 익명을 요구한 내부 소식통은 중국정부가 티베트 불교 사원에서 정치적인 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계속해서 부과해 왔다고 전했다.



중국당국이 최근 티베트 자치구 사원에 배포한 달라이라마 입적 후의 메뉴얼. 사진출처=RFA

특히 스님들과 일반 티베트인들에게는 달라이라마와 관련된 인물이나 사업, 단체는 물론 해외에 망명 중인 일반 티베트 난민과 접촉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부 소식통은 매뉴얼의 사본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며 최근 배포된 사항에 대해 "스님들에게 10가지 조항으로 된 매뉴얼이 배포됐다. 매뉴얼은 티베트어와 중국어로 각각 쓰였으며 '민족의 단결에 해를 끼치는 그 어떠한 종류의 행위도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는 강한 어조로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는 "14대 달라이라마의 서거 후 사진을 게시하거나, 추모를 위한 기도법회 등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다. 또한 인도의 망명정부가 15대 달라이라마의 환생자를 찾는 것에 협조하는 것과 중국 정부가 15대 달라이라마를 찾는 과정을 방해하는 행위 등도 금지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RFA의 인터뷰에 응한 인권 전문가들은 이것이 티베트인의 종교적 자유를 억압하는 중국 정부의 새로운 대처라고 말했다. 워싱턴에 소재한 국제 티베트 지원 네트워크의 연구·모니터링 부장인 부충 체링은 "중국 정부의 행동은 티베트 불교도를 종교 교리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과 그 정치적 목표에 충실하게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시도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의 너리 투르켈 위원장은 "간쑤성에서 달라이라마와 티베트 불교도들의 신행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최근 중국 정부의 행동은 달라이라마 환생 과정에 간섭을 시도하는 중국 정부의 새로운 시도"라고 말했다. 투르켈 위원장은 이러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 당국자에게 국제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신뇨엔, 세계 평화 위한 등롱 띄우기 봉행

5월 28일 하와이 화재 희생자 등 극락왕생 기원

세계 각지의 전쟁으로 인한 갈등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불자들의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특별한 행사가 눈길을 끈다.

종교법인 신뇨엔(眞如苑, 원주 이토 신소)은 5월 28일 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데이를 맞아 하와이 호놀룰루시 일대에서 '25주년 하와이 등롱 띄우기'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미국 현충일은 미국 전몰장병을 비롯하여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날로 신뇨엔은 1999년부터 호놀룰루시에 위치한 신뇨엔 하와이 정사와 아라모아나 해변 등에서 등롱 띄우기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신뇨엔 불자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 등 5만여 명이 함께했으며, 참가자들은 2023년 8월 하와이 마우이섬 화재로 숨진 100여 희생자들을 비롯한 재해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행사를 주관한 이토 신소 신뇨엔 원주는 "희망과 광명의 빛이 담긴 등롱을 통해 모든 돌아가신 이들의 극락왕생과 세계평화를 기원한다"며 "모든 생명의 행복과 융화를 위한 기도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신뇨엔은 우란분절을 비롯한 불교 주요 명절마다 전쟁과 재해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법회를 열고 있다. 2023년 8월에는 일본 야마나시현 진징사와 가와구치 호수에서도 등롱 띄우기 행사를 봉행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전세계 각 정사를 통하여 생중계됐다.

신뇨엔 측은 "올해의 등롱 띄우기는 25년 역사상 처음으로 하와이 희망의 상징으로 불리는 외양 선박 호틀레어호와 협동해 집행했다"며 이는 환경보호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달라이라마 다녀간 인도 불교 성지, 사실상 방치

11세기 조성 화강암 석조불
대승불교 포교 위해서 조성

인도 남서부 케랄라 불교 유적이 감독 기관 관리 미흡으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월 23일 인도 매체 '더 뉴 인디안 익스프레스'는 인도 고대 불교 유적지 방치 소식을 전했다.

인도 남부 케랄라주에 위치한 연안 도시 알라푸자에서 남쪽으로 약 19km 떨어진 카루마디 마을에 위치한 불교 유적 '카루마디쿠탄'은 케랄라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와의 연결고리 중 하나이다. '카루마디에서 온 소년'이란 뜻을 가진 카루마디쿠탄은 11세기에 조성된 높이 0.9m의 검은 화강암 석조불로 왼쪽 어깨부터 무릎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2014년 라자세크란 필라이가 인도 고고학부에 개인 소장 중이던 카루마디쿠탄의 왼쪽 팔 일부를 기증했으며 현재 크리슈나푸람 궁전에 보관하고 있다.

해당 유적은 인도 불교사에 중요한 유적이다. 관광 명소로도 지정되었으나 안내소, 화장실, 가로등, 식수대 등 기본 시설 없이 사실상 방치 상태로 놓여있다. 2014년 인도 고고학국은 12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지닌 카루마디쿠탄을 보호하기 위해 유지 보수 공사를 추진했다. 그러나 여전히 참배를 온 순례자를 위한 시설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치된 카루마디쿠탄 석조불. 사진출처=위키미디어

케랄라 불교 평의회 니슈 보드는 "카루마디쿠탄 유적은 순례자를 맞이할 수 있는 시설과 관리자가 없다. 또한 가로등이 없어 유적지와 유적지 진입로가 해가 지면 칠흑같이 어두워진다. 경비원 한 명이 유적을 지키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적지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유적지 경계를 침범한 건축물도 생겼다"며 "알라푸자 행정과 인도 관광 부서는 카루마디쿠탄 유적지를 보존 및 홍보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케랄라 불교 평의회는 2014년부터 매년 카루마디쿠탄 유적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회를 주최하고 있다. 매년 1000여 명의 내·외국인 불자가 봉축 법요식에 참석한다.

카루마디쿠탄 석조불은 1930년 고치 항구 개발 중 항구 기술자 로버트 브리스토우 경에 의해 발견되어 유적지를 조성했다. 1965년 5월 5일 달라이라마가 카루마디에 방문해 카루마디쿠탄 석조불이 케랄라에 불교 전파를 위해 조성됐음을 확인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프란치스코 교황, 태국 불교에 화합 강조

태국 불교를 대표하는 스님 100여 명이 5월 27일 바티칸 교황 관저 사도궁 클레멘스 홀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남을 가졌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류와 지구를 치유하기 위해 종교 간 대화와 소통,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각자의 종교적 전통을 따르며 절망한 인류에게 한 줄기 희망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접견을 마친 태국 불교 대표단은 로마에서 오래된 교회 중 하나인 산타 마리아 성당에서 열린 미사에 참석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태국 불교 대표단이 바티칸 사도궁 클레멘스 홀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출처=카톨릭 리뷰

日, 쿠카이 대사 탄생 기념전에 뜨거운 반응

탄생 1250주년 기념으로
전시품 80% 중요문화재

고대 일본불교와 문화사에 큰 영향을 미친 헤이안 시대의 스님, 쿠카이(空海, 774~835)의 탄생 12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이 열렸다. 일본 나라국립박물관에서 개최 중인 특별전 'KŪKAI: 밀교의 뿌리와 만다라의 세계'는 일본에서도 유례가 없는 전시회로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29일 일본의 '미술전 네비', '마이니치 신문' 등의 현지언론들이 연일 특별전에 대해 보도했다.

774년 일본의 사누키(현 카가와현)에서 태어난 쿠카이 대사는 15세에 불교에 귀의, 31세에 정식으로 구족계를 받고 그해 당나라 유학을 떠났다. 그곳에서 스승인 혜과(惠果) 화상과 운명적인 만남을 거쳐 단 3개월 만에 진언밀교의 모든 가르침을 전수 받았다. 쿠카이 대사는 귀국 후, 밀교에 의한 호국안민을 목표로 조정과 민중의 큰 지지를 받았다. 일본 진언종 개조가 된 쿠카이 대사는 진언종



오지여래와 양계만다라가 전시된 전시회장 전경. 사진출처=요미우리 신문

가르침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저술을 남기고 교육, 문화, 건축, 토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활동으로 일본 고대사에 큰 획을 남겼다.

쿠카이 대사 탄생 125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전시회는 총 5구역으로 나뉜다. 이번 전시회의 핵심이라 불리는 4구역은 '진고지(神護寺)와 토지(東寺)'라는 제목으로, 쿠카이 대사가 일본으로 귀국한 후의 활동에 집중했다. 특히 쿠카이 대사가 직접 제작에 참여했다고 전하는 만다라 중 유일하게 현존하는 '다카오 양계만다라(高雄兩界曼荼羅)'가 6년간의 수리를 마치고 최초로 대중에 공개됐다.

박영빈 객원기자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강법' 오행컬러패치 특판 할인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 · 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1+1 소비자가 ₩99,000 → 60%할인
₩39,600 총 80매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허리통증
무릎통증
어깨/목통증
손목/발목통증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